

육아 지원과 인구 증가 대책 (나가노현 시모조촌)



■ 사업 배경

2

-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, 그 중에서도 중산간지역은 젊은층의 도시부への 유출 등이 우려되고 있다. 특히 그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화, 과소화가 염려되고 있다.
- 「중산간지역」에 해당되는 시모조촌(下條村)의 인구는 1950년 6,410명→90년 3,859명으로 격감(40년간 약40% 감소). 92년에 취임한 촌장이 주민에게 위기감을 호소하며 인구증가에 연결되는 매력있는 마을만들기에 열을 올렸다.

■ 사업 개요

3

1. 청년정주촉진주택의 정비

- 1997년~2006년 마을(村)운영의 임대 주택 10동(棟) 124호(戸) 정비.

[건축비: 1동 1억1,000만엔 정도(국가의 보조금은 미사용)
입주자격: ①어린이가 있는 세대 또는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
②지역의 주민자치조직이나 소방단에 참가]

- 집세를 인접시의 민간 아파트의 반액정도로 억제한 결과,
마을밖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많이 입주.

2. 부양 택지의 조성

- 목적: 1의 「청년정주촉진주택(임대주택)」 입주자를 영주시키는 것.
- 택지가격: 실세가격과 동정도.
- 구입 조건: 없음(마을에서 벗어난 거주자가 이주해 온 케이스도)
- 조성구획수: 55구획(매진)

3. 고용대책집합주택의 정비

- 촌내에서 일하는 촌외(村外) 거주자(독신자)을 위하여 집합주택을 2008년에 1동 정비.
- 고용주의 법인과 마을(村)이 계약. 법인은 임대 사택의 형태로 종업원에게 제공.

4. 주택건설을 위한 보조제도의 창설(2015년도~)

- 보조액수:
 - 주택건설비...건설비의 10%(상한 100만엔)
 - 택지구입·조성비...구입·주성비의 50%(상한 100만엔)
- 대상: 45세 이하의 사람

5

5. 보육료의 단계적 인하(2007년도~)

- 3세 미만의 경우: 8,900엔~48,100엔(2015년도 기준)
※국가의 기준으로는 9,000엔~104,000엔
- 3세 이상의 경우: 5,800엔~28,700엔
※국가의 기준으로는 6,000엔~101,000엔
- 둘째는 반액, 세째 아이 이후는 무료.

6. 고교 3학년까지 의료비의 무료화

7. 입학 축하금제도의 창설

- 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초등학교 입학시에 3만엔분, 중학교 입학시에 6만엔분을 증정함.

8. 출산 축하금의 지급

- 둘째 출산시에 5만엔, 세째 아이 이후 출산시에 20만엔 지급

■ 장점 · 선진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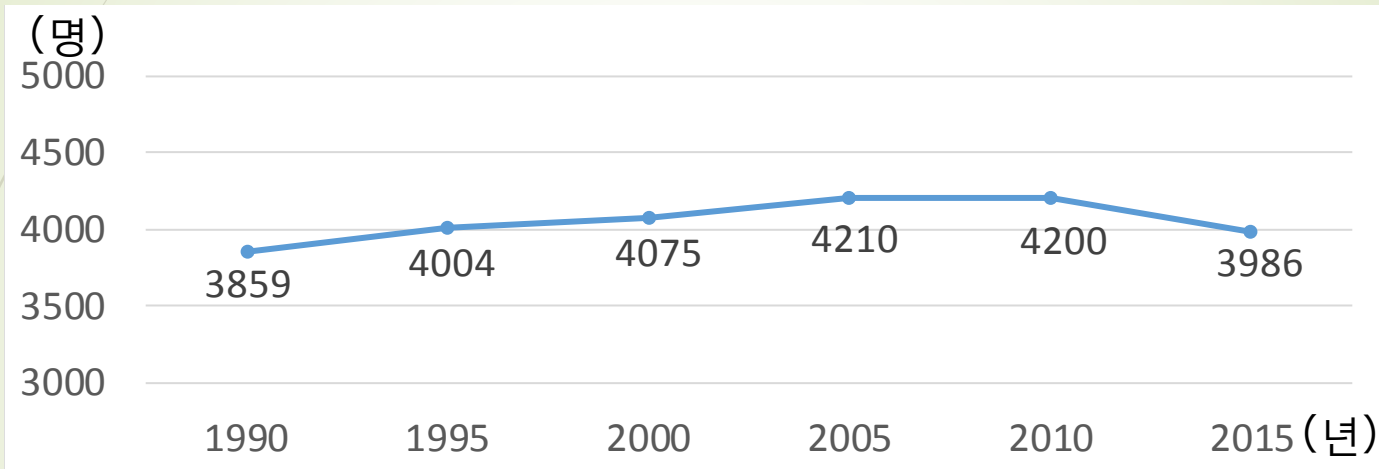
6

- ✓ 청년 정주촉진 주택의 건설에서는, 마을(村)의 정책에 부합한 입주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. 특히, 주민자치 조직이나 소방단예의 가입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, 입주자가 지역에 융화되는 것이 용이해졌다.
- ✓ 청년 정주촉진 주택예의 입주자가 결혼, 출산과 같은 라이프 스테이지의 진행에 의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보육, 의료,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주의 촉진을 꾀했다.

■ 사업 효과

7

✓ 1990년 이후, 인구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유지.



✓ 합계 특수출생율은,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